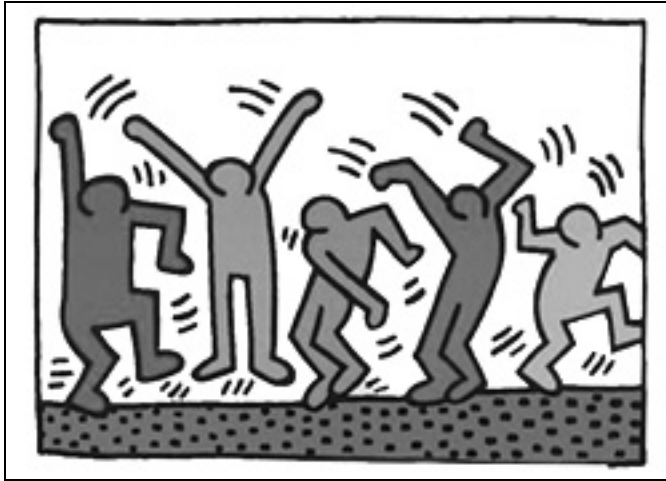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하지만 난 동성애자인걸”



차례 | CONTENTS

머릿글

1. 퀴어에 관한 아주 약간의 상식
STEP BY STEP! 동성애 관련 용어 알아보기
그림으로 알아보는 퀴어 심볼
웹에서 만나는 퀴어 | KUS
2.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옛 사랑 이야기 | 붉은낙타
나는 그녀를 사랑해 | 카사블랑카
내 친구는 게이이다 | MF



3. 어디에나 퀴어는 있습니다

4. 핫이슈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35대 민족고대 총학 선본 질의서 및 답변

5. 여기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1995-2000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21세기

사람과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 JD

나와 사람과 사람 2 | Nestea

사람과 사람과 함께하세요

맺음글 | peanutz



퀴어가이드 제 1 호

편집 : 사람과 사람 대표

발행 : 사람과 사람 2001.12.10.

퀴어가이드 머릿글

사람과 사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해 아시는 분도, 또 그렇지 않은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1995 년에 생긴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입니다. 올해로 벌써 6 번째이군요. 그동안 저희는 안과 밖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이 등장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는 일반인 사이에서 그리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지수는 그리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이며 이성애 중심적인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모두가 이성애자라고 가정하고 그것만이 올바른 것인 양 사회는 요구합니다. 그런 틀에 맞지 않는 수많은 성적소수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성애자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동성애자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동성애자는 TV 나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부류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언제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얇은 책자 ‘퀴어가이드’는 그런 동성애자와 동성애, 그리고 한국 동성애 커뮤니티에 관한 아주 약간의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입니다.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가이드북에 나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느껴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정보일 뿐이지요. 저희는 이 가이드북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단번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이 인식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깐요. 하지만 이 가이드북이 인식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성주의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듯, 동성애에 대해 안다는 것은 단지 동성애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퀴어가이드는 단지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일단 이렇게 첫 페이지를 펼치게 되었으니 한번 끝까지 여행을 끝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달리 하는지.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되었나요?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함께 갑시다!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사람과 사람 대표



1. 퀴어에 관한 아주 약간의 상식 | QUEER IS GOOD

* STEP BY STEP ! 동성애 용어 알아보기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차이는? 트랜스젠더는 동성애자일까? 용어 정리로 한 번 알아보시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겠죠?

STEP 1 : 먼저 짚고 나가야 할 것들

- ① **SEX** : 생물학적인 성 (Biological Sex)은 염색체나 외부 성기 등의 특성에 의해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남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나 실제로 성염색체는 XX,XY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② **GENDER** : 문화적, 사회적인 성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성과 달리 젠더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가 다른 사람을 트랜스젠더라 칭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원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성역할을 모두가 과도하게 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리수의 예를 들자면 모든 트랜스젠더가 극단적으로 여성성 또는 남성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트랜스젠더를 FTM(Female To Male),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트랜스젠더를 MTF(Male To Female)이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일반적으로 이성애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젠더와 반대 성을 성적 지향으로 하는 트랜스젠더는 이성애자입니다. (하리수는 이성애자 ^^). 그러나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 ④ **LGBT** :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sexual) 의 약자입니다. 엘지비티. 이 용어는 성적소수자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⑤ **Queer** : 퀴어. 퀴어의 원래 의미는 "기묘하다, 이상하다"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 운동의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동성애 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용된 단어입니다. ‘그래 나 퀴어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의미를 맞받아 친 용어입니다. 퀴어 또한 이성애 제도에서 소외된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⑥ **이반** : 이반이라는 단어는 한국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동성애자 전체를 지칭합니다. 이반의 어원은 예전 한국 게이 커뮤니티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은어입니다. 일반(一般)이라는 단어에서 이반(二般)이라는 일반(이성애자)과의 구별, 냉소적인 자기 비하, 은밀함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서울대 이정우 씨를 비롯한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의 운동가 들에 의해 그 의미가 재정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반을 뜻하는 한자도 ‘二般’에서 ‘異般’으로 바꾸면서 그 의미는 점차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⑦ **동성애와 동성연애** : 동성연애자? 이 용어의 어감이 어때신가요?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이성연애자 라는 단어는 어떻게 느끼세요? 동성연애,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은 동성애자를 육체적 성관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여전히 어떤 신문에서는 이 용어를 쓰는데 그런 신문은 무식쟁이가 만드는 것이니 다시는 읽지 마세요. 동성애, 동성애자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 ⑧ **Coming Out** : 커밍아웃. 더 이상 한국에서도 특별한 용어가 되지 않게 된 이 용어는 Coming Out of the Closet, 즉 벽장으로부터 나오기 라는 뜻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커밍아웃에는 자신을 동성애자라 인정하는 단계, 주위 동성애자에게 밝히는 단계,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단계 등 여러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에 의한 강제적인 커밍아웃을 아우팅(Outing)이라고 합니다.

STEP 3 : 확장된 용어 Advanced Mode

- ① **Butch/Femme** (부치/웬) :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대적인 젠더역하 고정관념을 레즈비언 커플의 역할관계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치는 레즈비언 가운데 남성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웬은 그 반대의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나누려는 이성애적 시각의 부산물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② **Top/Bottom** (탑/바텀) :

위와 비슷한 구분의 남성동성애자 용어가 바로 탑/바텀 입니다. 남성의 성역할을 맡는 성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파트너를 탑이라고 하고, 상대 파트너를 바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탑/바텀 대신 때짜/마짜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관계 에서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③ **Drag King/Drag Queen** (드랙킹/드랙퀸) :

남장여자를 드랙킹, 여장남자를 드랙퀸 이라고 합니다. 이성애, 동성애, 성전환자와는 달리 드랙은 선택적인 것이고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드랙퀸/킹에 이성애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드랙퀸/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드랙은 일종의 직업이나 취미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드랙퀸/킹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드랙퀸/킹이지 항상 드랙퀸/킹인 것은 아닙니다. 드랙은 아울러 기존의 젠더 역할을 꼬집고 뒤집는 정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 합니다.

사람과 사람

- ④ **Homophobia** (동성애혐오, 공포증, 호모포비아) : 동성애혐오, 공포증이란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비이성적인 막연한 두려움, 억압, 그리고 혐오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막연하게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질병이고, 전염병이고, 정신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것이죠. 동성애 공포증은 이성애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영향과 그 동안 받은 교육 등으로 인해 동성애 공포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성과의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⑤ **Heterosexism** (이성애주의, 헤테로섹시즘) : 이성애 성 정체성과 행동만이 정상이며 규준적인 반면에, 다른 성적 지향들은 일탈적이거나 변태적이고 비정상이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제도적인 이성애주의는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성적소수자들을 부정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처벌하면서, 이성애를 정치, 종교 등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지지하면서 정당화 합니다.
- ⑥ **Life Partner** (생활동반자, 라이프파트너) : 동성애자 커플에서 동반자 관계를 서약한 상대를 말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성애자 관계의 '배우자', '연인'과 의미가 통하기도 하지만, 이성애자 커플과는 달리 단정적인 모델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관계에서 제약적인 틀은 없습니다.

- ⑦ **Gayder** (게이더) : 게이(Gay)와 레이더(Rader)의 합성어. 게이 레이더. 다른 동성애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게이들의 유희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림으로 알아보는 퀴어 심볼**

이번에는 그림으로 나타난 심볼들을 한 번 알아볼까요? 흑백이라 잘 느낌이 안 살지만, 색깔을 입혀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 ① **무지개** :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심볼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의 여섯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무지개 깃발은 분홍색과 남색이 추가된 8 가지 색깔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러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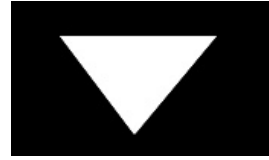


것이 분홍색은 잉크가 흔하지 않아 제작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남색은 1979 년 게이 퍼레이드 당시 대청성과 대로에 맞추기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원래의 8 가지 색은 각각 색슈얼리티, 삶, 치유, 태양, 자연, 예술, 조화, 영혼 을 의미합니다. 꼭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지개 색깔이 보여주는 다양성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심볼이 된 큰 이유일 것입니다. 동성애자 클럽, 바, 카페 등이 밀집한 곳에서는 해당 업소가 동성애자 용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문 밖에 이 무지개 깃발을 걸기도 합니다. 한국의 이태원, 런던 등 이런 곳에서 무지개 깃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② **분홍색 역삼각형** : 핑크 트라이앵글. 이 심볼의 기원은 나치 시절, 동성애자를 수용하면서 구분하기 위해 나치가 표시한 심볼입니다. 나치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온갖 소수계층을 억압하였죠. 이 심볼은 현재 게이 프라이드, 동성애 인권 운동 등에서 많이 쓰입니다. 무지개 깃발과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 심볼입니다.



③ **리본** : 리본은 색깔에 따라 여러 상징물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에이즈 리본과 게이 청소년 자살 인식 리본을 설명하겠습니다. 에이즈 리본(AIDS Awareness Ribbon)은 1991년 폴 자바라 및 에이즈로 죽은 친구와 동료들을 추모하는 예술가 모임 Visual AIDS에서 나왔습니다. 에이즈 리본의 색깔은 빨강인데 이는 혈액과 사랑, 열정을 의미합니다. 게이 청소년 자살 인식 리본(Gay Teen Suicide Awareness Ribbon)은 유난히 자살율이 높은 동성애자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인 또한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던 자비에르 뱀터스가 고안한 이 리본의 색깔은 흰색으로 그것은 청소년의 순수함과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동성애자 청소년의 자살을 부추기는 상황이 있는 한 이 리본은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표현의 자유 리본, 무지개 리본 등 색깔만 달리하여 여러 리본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리본 운동에 동참해 보세요.



* **웹에서 만나는 퀴어**

2000년대 동성애 커뮤니티 새로운 선택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중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이성애자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한 번 서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 **이반시티** <http://www.ivancity.com>



남성 동성애자 사이트 중 이용자가 제일 많은 사이트. 옛날 이름은 화랑이었지만 1999년 회원제로 바뀌면서 이반씨티로 이름을 바꿈. 제일 활발한 사이트답게 각종 다양한 게시판과 회원수가 많은 대화방이 특징이다. 주로 성인 게이의 이용이 많다.

* **니아까** <http://www.niagga.com>



문화 잡지로 출발하다가 웹진으로 발전된 레즈비언 사이트. 단순한 웹진이 아닌 어찌다보니 친목 커뮤니티의 특성마저 가지게 되었다. 문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와 정보가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곳. 니이까. 세상의 모든 니아까!

사람과 사람

구야홈닷컴 <http://www.gooyahome.com>



1998년에 처음
공중파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각종 마스크를 통해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펼치시는 구야님의
홈페이지. 구야님의

지금까지의 활동, 사진뿐 만 아니라 동성애강좌, 게이바 가이드 등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버디친구닷컴 <http://www.buddy79.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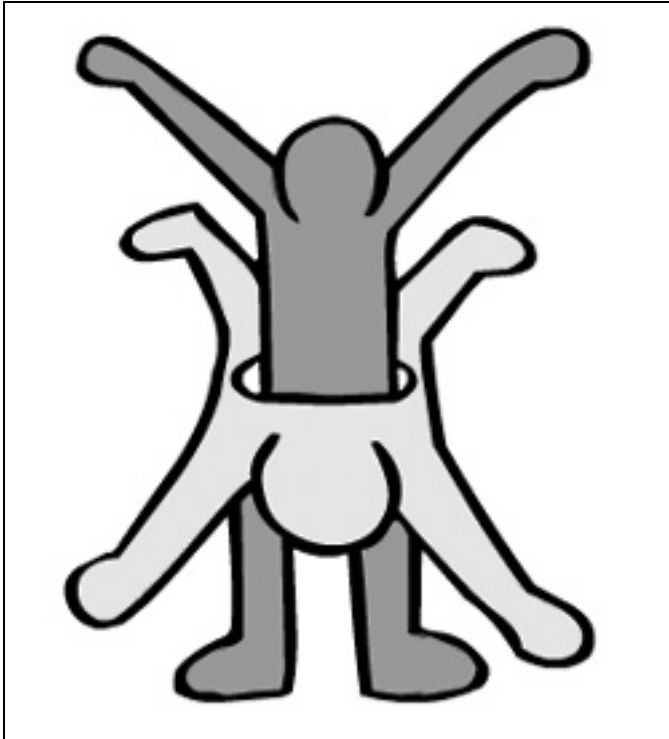


한국 최초의 동성애 전문지 BUDDY가 만든 동성애 포털사이트. 각종
동성애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특히 이 사이트는
동성애자의 친구나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나 레포트또는
기사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 **이반의 가족과 친구들** <http://home.hanmir.com/~pflagkorea/>



가족 중 이반을 두고 있는 이성애자가 만든 개인 사이트. 마찬가지로
친구나 가족이 LGBT인 이성애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2.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 ALL YOU NEED IS LOVE

그렇습니다. 역시 사랑이 어디에서든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련의 과정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결국 다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사랑,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같을까요?) 사랑이 일반화가 될 수 없듯, 다음의 에세이는 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런 모습 한번 보세요. 마지막 에세이는 게이를 친구를 둔 이성애자의 글입니다.

사람과 사람

* 나의 옛 사랑 이야기 | 붉은낙타

兄에게...

兄 오랜만이야. 내가 兄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것 정말 정말 정말
오랜만이지?

5년 만 인가?

兄 축하해줘.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해.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취직도 되었어.
兄은 항상 내가 철없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걱정했지만 이제 나도
많이 변했어.

그 내성적이던 성격도 이제 많이 외향적으로 변했고...

내 나이도 이제 어엿한 스물 다섯 살이 되었잖아.

兄이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군대도 다녀왔고,

兄이 한 번도 사귀어 보지 못한 여자친구도 사귀어 봤고,

이젠 내가 兄보다 한 뼘 더 세상 경험을 많이 해 버렸네.

그 때만해도 兄은 내겐 넘볼 수 없는 큰 산 이었는데, 참 세월 빠르지?

兄 알아? 兄이 내게 말했던 것처럼

나도 사실은 兄을 하루도 보지 않으면 정말 살수 없었다는 것을...

兄이 나한테 대답을 강요 했었잖아. 그 큰손을 휘두르며 반

강제적으로...

그 때 내가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되곤 해.

참, 兄의 좌우명 아직도 기억한다. "후회할 것을 하지 말자." 정말

단순한 좌우명...

兄... 지금 정말 후회하지 않는 거지?

난 그런데 자꾸 후회가 되는 것일까?

兄이 내게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난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어.

그리고兄이 내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난 내 맘속에 들어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

너무 무서웠어 이런 감정들이...

그 때는兄도 나도 자신의 정체에 대해 어떤 기준도 없었었어.

우리 스스로 정신병자라고 생각 했었잖아.

한때 유행하던 광고대사 처럼 "우린 미쳤어"라고 말하며 웃었잖아. 그

광고 우리가 원조인데... 그렇지?

내가 감정표현이 서툴다는 것... 참 바보 같았어

이것 저것 쓸데 없이 생각 하다 결국 아무것도兄에게 해준 것이 없어...

정말 미안해...



사람과 사람

* 나는 그녀를 사랑해 | 카사블랑카

지금 이 글을 쓰고 내 바로 옆에는 내 애인이 굳히 잠자고 있다. 내가 그녀보다 훨씬 잠이 많아서 내가 항상 먼저 잠이 들고 그녀가 내 이불을 덮어주고 도닥거리려 왔는데, 오늘은 피곤했는지 그녀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장난기가 발동해 그녀를 살며시 흔들며 말을 걸어본다. "당신 애인이 누구야, 응?" 잠에 취해 의식이 거의 없을 텐데 내 물음에 "으..음..☆댕이"(☆은 내 성(姓)이다)라고 대답한다. 폼! 자면서도 대답을 하다니……. 분명 잠꼬대이겠지만 그 잠꼬대에서도 나의 별명을 부르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다. 꿈속에서도 나를 찾는 그녀를 나는 너무 사랑한다.

그렇다. 나는 동성애자이다. 나는 이제껏 한번도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남자에게 완전히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얼굴이 반반하거나, 춤이나 노래를 잘하는 등 예능에 능하거나, 유머 감각이 뛰어난 남자를 보면 '저 자식, 여자 꽤나 홀리겠군…….'이라고 생각하며 흥미롭게 지켜본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흥미나 관심의 수준일 뿐이지 분명히 사랑이나 동경은 아니다. 내 첫사랑부터 현재의 사랑까지 그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다. 내가 초등학교일 때의 예쁘장하고 다정한 선생님, 새침때기 소녀, 어리광 많고 귀여운 또래아이… 모두 스쳐 지나간 사랑이다.

어렸을 적에는 그러한 동경심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물론 죄의식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다. 그저 소년같이 그런 감정을 반대로 표현해서 괜히 괴롭히거나, 엉뚱한 장난으로 놀라게 했다. 또,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던져주고 도망치기도 했다. 그러나 점점 커갈수록 내 그 자연스러운 감정은 감추어졌다. 마음은 분명히 어느 여성에게

끝렸지만 표현할 수는 없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다. 일부러 자칭해서 힘없는 소수가 되어 사회에서 배제되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는 않았다. 동성을 사랑하면서도 그 감정을 부정했고, 언젠가 멋진 이성이 나타나 그 불행한 감정을 불식시켜 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무시하고 살아가기에는 나는 너무 어려웠다.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 그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남들을 대하는 것도 모두 가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능을 끝내고 자신을 뒤돌아 볼 시간이 많아졌을 때, 난 더 이상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짧은 인생을 본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며 살아갈 수는 없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내 인생을 살리라 결심했다. 그렇게 내 정체성을 인정하니 마음이 안정되어졌다.

이 때부터 동지(?)들을 찾으러 다녔다. 주위에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이 없었고, 있더라도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동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온라인상의 모임을

사람과 사람

찾았고, 채팅을 통해 여러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오프라인에서 일반 친구들과 지내는 것보다 온라인 상에서 이반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의 애인을 만났다. 처음에는 그녀와 이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줄 예감하지는 못했다. 그저 편한 동생처럼 생각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점점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이었다. 나이로는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성숙되어 있었다. 그리고 밝은 성격과 모나지 않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와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내 어둡고 내성적인 성격이 점점 그녀를 닮아 밝아지고 쾌활하게 되었다. 그녀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내 성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면 그녀를 만나기는커녕 사랑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 내 친구는 게이이다 | MF

내 친구는 키가 작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골격도 작고 얼굴도 부러울 만치 작다. 별로 비싸보이지 않은 알마니 안경을 쓰고 다니며, 뽕뽕해 보이는 눈망울에 워킹 베이스 실력 하나는 레이 브라운 저리가라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배려해주는, 고집이러곤 찾아볼 수 없는 유순하고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성격 탓에 미식가와는 거리가 멀어 아무거나 잘 먹는 복스러운 놈이다. 그리고, 내 친구는 게이이다.

가끔 나의 애인이나, 또 다른 친구에게 내 친구를 묘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그렇게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내 10년 지기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위의 이야기들을 한다. 저 정도 설명해주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친구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적당히 전달되는 듯 하다. 비록 내 친구와 함께 지냈던 경험이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해도 말이다.

그런데, 내 친구를 묘사하는 여러 특성들 중에 유독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놈이 게이라는 점이다. 뭐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세심하다면 굳이 내 10년 지기가 게이라는 점을 이야기 못할 이유도 없다. 단지 그 이야기로 인해 이놈에 대해 그 사람들이 가질 편견을 깨주려고 한 두 달만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만약 소문이 난다면 내가 그 군중들을 모두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뿌리깊은 편견을 깨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나 천성이 게을러서 귀차니즘 수행자인 나로서는 내 친구의 취향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단지 그저 아무 말 안하고 있는 편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저 침묵할 뿐이다. 침묵하면 그들은 내 친구가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심지어는 그들의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에 대해서도조차 침묵할 때가 많다. 귀찮아서. - -;;) 이점 늘 이놈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이기도 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하여 왜곡된 정보를 남기고, 알마니 안경이니 작은 얼굴이니 하는 쓰잘데기 없는 이미지로 자기를 표현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나쁠 일일까.

내 친구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귀찮아서 만은 아니다.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편견을 도저히 깰 수 없어서이기도 하다. 이 놈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과 사람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준 이후 (난 그때까지 이놈이 이성애자인 줄 알았으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과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어 왔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종종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꺼내보고는 한다. 그 과정에서 절실히 깨달은 점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성적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히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한 곳이라는 점이었다.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편견을 바로잡는 데에 5 년의 시간을 소비했으나 전혀 결실이 없는 것을 보면 암담하기까지 한 것이다. 아까 도시락 싸들고 두 달을 쫓아다닌다고 했었나? 사실 두 달만에 그들의 편견이 바뀐다면 이 놈을 위해 만사 제쳐두고 해 볼만도 한데..(진짜야 임마)

그럼 나는 어떻게 된거지? 나는 그들과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나? 심지어 나는 지독한 예수쟁이이기도 한데? 글썄, 그건 내가 이놈의 친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실 난 내 친구가 비교적 빨리 나에게 아우팅 당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제 내가 이놈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을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놈에게도 잘 된 일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비교적 빨리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깨버릴 수 있었다는 점은 내 일생에 도움되는 일이기도 했다. 남들은 몇 년 걸려도 안되던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으니 말이다. 편견은 버릴수록 행복하다는 점에서 나는 이놈을 아우팅 시키고 보다 행복해졌다. 고맙다 친구야.

사실 나는 커밍 아웃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커밍 아웃이라는 성적 소수자들이 이성애자로 왜곡되게 알려진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음침한 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가 말이다. 왜 성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취향을 밝히지 못하여

음침한 inside 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가? 그들의 성적 취향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사실 나는 동성애자다” 라는 말은 떳떳하게 못하면서 “사실 나는 흡연자야” 라는 말은 당당하게 하지 않는가? 간접 흡연, 공기 오염, 콩초로 인한 미관 해치기 등등의 피해를 생각해보라. 우리 이제 성적 소수자들을 음침한 inside 에서 꺼내고 흡연자들을 대신 그 굴 속으로 집어 넣고, 이제 자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밝힐 때 커밍 아웃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가? 이상은 조금 과장된 농담 (no offense to smokers)이지만, 단지 자신의 취향이 소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소수자들이 오늘도 어두운 inside 에 갇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비인권적이며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머지 않은 미래에 분명 오늘의 상황은 역사의 년센스로서 후세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임성훈이 진행하는 퀴즈 쇼에 커밍 아웃이 10 단계 역사 문제로 나올 정도의 생소한 말이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물론 커밍 아웃은 아직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어렵냐 하면, 이 글 첫 단락에 나온 내 친구의 묘사는 그가 게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모두 구라다. 그 점 역시 이놈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요즘 내 친구는 준비되지 않은 아웃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농담 따먹기로 기분 전환이나 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사실 내 친구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그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과 논리적인 생각들을 정리하자면 책을 쓰고도 남을 것이다. 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이렇게 짧게나마 적어보고 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나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다음의 말을 해보고 싶을 뿐이다.

“내 친구는 게이이다!”



3.어디에나 퀴어는 있습니다 | QUEER KOREA

한국에도 동성애자는 있습니다. 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동성애자는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의 퀴어들은 말을 건네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낯설음 앞서더라도 여러분께 한마디 한마디 건네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의 동성애자 축제 무지개 2001 의 소개와, 게이들과 함께 지낸 어떤 분의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동성애 관해 소개할 것입니다.

* 무지개 2001-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 무지개 2001 (Queer Festival - Rainbow 2001)

:한걸음만 나와봐, 놀자



동성애자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부정하는 현실에 대해 밖으로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밖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할 때, '나의 자긍심을 지켜나간다!'는 생각보다 앞서서 오는 것은 '내가 혹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뒤집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개적이고 급진적인 축에 속하는 퀴어축제(Queer Festival)는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유쾌한 소란의 장입니다. 해외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동성애자 축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축제를 꼽자면

사람과 사람

미국의 [자긍심행렬/Pride Parade]와 호주의 [Mardigras]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축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열렸습니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비교적 배타적이기로 소문난 한국에서 이와 같은 축제를 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남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자긍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어느덧 2 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열린 1 회 축제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되었던 퍼레이드와 연세대학교 제 2 인문관 강당에서 열린 문화행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인지 참여 인원도 적었고 진행상의 문제도 많았지만, 처음으로 여는 성적 소수자들의 축제라는 그 의미만으로도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 회 축제는 홍익대학교 운동장과 홍대 앞 피카소거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퀴어 단편 영화제와, 거리 포스터 전시회, 해외 이민 설명회,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퍼레이드 등 총

5 개의 행사가 9 월 14 일부터 16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의 거대한 퍼레이드에 비해 우리나라의 축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지만, 올해 행사는 '독립예술제 2001'의 후원을 받아 홍보나 규모면에서 전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회 행사에 비해 무엇보다도 눈에 띈 점은 행사 참여 인원이 확실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퍼레이드에서의 60 여명의 참여자들에 비한다면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200 명 이상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홍대 운동장에서 시작된 퍼레이드 행렬은 우리나라 최초로 커밍아웃한 탤런트 홍석천 씨가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용감한 퍼레이드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힘찬 외침은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곧이어, 풍물패의 축하공연과 드랙쇼가 끝나자, 운동장에 운집해 있던 200 명 이상의 퀴어 혹은 일반 관객들은 저마다 무지개 깃발을 들거나 분장을 하고

홍대 앞 2 차선 도로로 향했습니다. 약 200 미터 가까운 도로를 왕복하는 동안 거리의 대형 스피커에서는 퀴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이 찌렁찌렁 울려 퍼졌고, 퍼레이드 참여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길에 아랑곳 하지 않고 행렬을 계속하거나 춤을 추었습니다.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과 사람

잠시나마 벗어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인지, 모든 참여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던 시민들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도로를 걷는 퍼레이드 행렬이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러면서도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행렬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직 동성애자들에게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혹시나 일반인들에게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새롭고 획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지요. 그와 같은 시민들에게 축제는 성적 소수자들에 관해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해 주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의 한시간 가까이 진행된 퍼레이드는 다시 홍대 운동장으로 돌아와 진행된 댄스파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지개 2001 행사를 단지 퀴어들만의 축제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퍼레이드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숨기고만 살아왔던 이 땅의 성적 소수자들과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시민들이 어울리고 그로 인해 서로를 좀더 가까이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퀴어들은 '자긍심'보다 앞섰던 '두려움'이 퍼레이드 행렬을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뒤로 숨어버림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자신감을, 일반인들에게는 새로움과 열린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퀴어문화축제 행사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올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내년엔 좀더 크고 알찬 '퀴어문화축제 : 무지개 2002' 행사를 만들기 위해 이미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2001 홈페이지 <http://www.rainbow2001.net>

마디그라 공식 홈페이지 <http://mardigras.com.au/SGLMG.html>

세계 퀴어퍼레이드 소개 <http://www.interpride.org>

* 동성애와 인간해방 | 김은경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동성애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관심에 가까웠던 것 같다.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내게 한 친구의 커밍아웃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난히 착하고 심성이 고왔던 그 친구는 내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말했고 동성애자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난 지금도 나를 믿고 자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 친구가 고맙다.

그 친구를 통해 내가 얼마나 단단한 편견의 껍질 속에 있었고 동성애자를 이해하는데 인색했었는지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다. 그 전까지 동성애자에 대한 나의 지식은 TV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던 다소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보도와 전공 공부를 통한 약간의 지식이 전부였다. 내게는 동성애자하면 성적인 것에 집착하고 몰두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커밍아웃한 친구를 통해 가장 먼저 깨진 고정관념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생활이 자기 생활의 일부이듯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누구나와 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평범한 생활인이라는 당연한 발견하고서 진리라도 발견한 양 기뻐했던 것을 지금 생각해보니 우습기도 하다.

동성애를 이해하기는 이성애를 이해하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나는 한때 이성끼리 서로 좋아지는 감정이 신기하게 생각된 적이 있었다. 왜 남자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는 걸까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녔더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들 했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생각하기를 단념했었다. 이성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면서 동성애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 동성애 연구의 결론이 떠오른다. 이성애자들에게 이성간의 사랑이 자연스런 감정이라면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동성간의 사랑도 그렇다는 점을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싶다.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내게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게 논문의 주제로 이어졌던 것 같다. 처음에 동성애를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하니 걸리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지도 선생님과 친구들, 가족들에게 논문 주제가 동성애라는 것을 알리는 게 하나의 도전이었던 것이다. 남들이 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동성애자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내가 커밍아웃이라도 하듯 부담스러워 했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 정도의 편견에 맞설 용기도 없다면 논문 주제를 동성애로 택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편으론 내가 동성애를 대하는 태도가 아직도 부정적이고 열려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논문을 쓰는 전과정은 이런 태도와 싸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또 한가지 설문 연구를 하려던 내게 동성애자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참 어렵게 찾아갔던 동성애자 인권단체와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1 자원 활동을 하며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트랜스 젠더 연예인이 데뷔해서 인기를 모으는 현실만으로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성숙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 아직도 동성애는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 거리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모든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거부하는 마음은 우리 동네에 정신 질환자 재활센터가 들어서거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때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맥락에서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는 단지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보편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논문을 마쳐가며 비단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뿐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 기독교와 동성애 | 카울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종교...나에게 있어 종교란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교회에 처음 나갔던 5 살 꼬마 시절부터 지금까지 종교는 내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때는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까지 종교적 사명감에 맞추어 구상한 적도 있었다.

각 종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나

사람과 사람

역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동성에게



끌리는 것에 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특히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형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는 더욱 힘들었다. 대학생이 되기까지 그러한 혼란을 안으로 웅크리고만 살았다. 다른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해보기도 하고, 동성을

좋아하는 것이 나의 착각일거라고 억누르기도 했다.

대학에 와서 동성에게 끌린다는 걸 인정했다. 동성애자...내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다. 주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동성애에 관한 기사에서 기독교 동성애자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1년쯤 뒤에 그 모임에 가게 되었다.(대학 내 모임은 나중에 나오게 되었다) 나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그전에 한번도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임 장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 때 가슴이 쿵쿵쿵쿵 댔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는 동성애자들의 모임...거기서 드리게 된 예배는 감격스러웠다.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매주 토요일엔 그 모임에 참석한다. 생각해보니 거의 2년이다 되어간다^^...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매주 토요일에 아무 대가 없이 3시간 거리를 차타고 오셔서 설교해주는 목사님이 계신다. 작년 성탄절에는 그 목사님이 계신

공동체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놀기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드렸다. 종교와 동성애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싶어서 나오게 된 일반친구도 있었다. (그녀는 나의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지금은 어학 연수가서 못보지만..ㅠ.ㅠ) 또 그녀 따라 영접결에 모임 엠티에 왔다가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었던 그녀의 단짝친구..... 일반과 이반, 고등학생부터 40 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임의 불을 지폈다.

성경에는 남색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괴로워한다. 용감하게 자기가 속한 교회나 성당에서 커밍 아웃을 한 경우에도 힘들어 하다가 결국 그 곳을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지만 율법적인 한국 대부분의 교회와 그 교인들이 그들을 비뚤어진 눈으로 보았을 것이 당연하다.

신께서 나와 또 많은 기독교 동성애자들이 동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리라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는다. 먼저, 성경에 나온 동성애에 대해 금하는 내용은 옛 이스라엘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동력을 중시했던 문화는 모두 동성애를 금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 역시 노동력을 중시했던 사회였으니 그것이 성경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동성애 뿐만이 아닌 남성의 정액을 자녀생산과 관련된 것에 쓰지 않는 경우를 모두 죄악시한다.(예를 들면 자위 같은 것)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색의 경우이다. 색이란 사랑이 없는 행위이다. 동성연애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동성애란 말 그대로 동성간의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의 표현도 과연 신께서 미워하실까?

사람과 사람

지금까지 주로 기독교와 동성애에 관해 말했는데, 이는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이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종교 모임들이 있다. 앞에서 말했던 모임은 주로 개신교도가 나가는 모임 (로렘나무그늘) 이고 이외에 천주교 동성애자 모임 (안개마을 등), 불교신자들의 동성애자 모임(불반) 등이 있다. 천주교 동성애자 모임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며 불교 동성애자 모임도 정기적으로 모여 절에도 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답답한 부분들에 대해 적게나마 쓰고 나니 조금은 후련하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일반들은 그렇구나 하고 읽었을 듯 싶고, 종교를 가진(특히 기독교) 일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읽었는지 궁금하다. 혹 동성애자에 대해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라면 이 글과 퀴어가이드를 읽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4. 핫이슈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Hot Issues

*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http://www.outpridekorea.com/free>)은 지난 7 월, 인터넷 내용등급제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생긴 한국 동성애자 단체 네트워크입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사람과 사람

공동행동과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해, 힘겨운 싸움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발족된 국가인권 위원회에서는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 정보법 시행령에서는 동성애를 여전히 변태성행위로 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최근 정통윤의 협박 메일에 의해 자진 폐쇄당한 동성애자 최대 웹사이트 엑스존(<http://www.exzone.com>) 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앞으로 오랫동안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또한 이 땅에서 동성애를 음란으로 규정하는 모든 규제가 사라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생각 부탁드립니다.

* 35 대 민족고대 총학 선본 질의서 및 답변

제 35 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선거 기간 동안 사람과 사람은 5 개 선본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선관위의 세척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2 개 선본으로 부터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선본에 전달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선관위와의 롤미팅에 의거 아바스타 와 까르페디엠 선본 만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이 두 선본의 답변을 함께 하는 자리를 이곳에 마련합니다. 답변 주신 선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현재 동성애자의 인권 상황과, 동성애자 단체의 투쟁에 대한 지지

(까르페디엠)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을 비롯 최근의 일련의 상황은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볼 수 있듯, 그것인 인권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 동성애자의 인권 상황은 이성애 중심 사회와 싸움으로써 발전되어 왔다. 보편적인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중산층, 성인, 남성, 이성애자 중심의 성문화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억압으로 다가온다.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간 해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문화의 민중에 의한 공유가 있어야 한다.

(야바스타) 한국사회에서의 동성애는 강한 이성애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시각과 구조적 불평등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지향한다. 야바스타 선본에서는 평등한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폭력과 불평등에 맞선 싸움에는 한 치의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다.

▣ 고대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활동에 대해

(까르페디엠) 고대와 같이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여러 행사를 통해 점차적으로 고대 내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야바스타) 사람과 사람과 총학생회와의 각종 사업을 통한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재 학생회 운영의 사이클에 동성애자의 인권을

사람과 사람

위한 행동에 관한 점이 공백으로 남아 있지만 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학생회 운영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면 관계 상 질의 및 답변을 정리하여 올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질의 내용 및 각 선본 답변 전문은 사람과 사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여기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 People to People

1995 년은 대학 동성애자 모임의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4 월 1 일 연세대 컴투게더를 시작으로 서울대의 마음 001(현 마음 005) 그리고 가을 9 월 21 일 고려대의 사람과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6 년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동성애자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성에 상관없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 함께하세요! 1 년 365 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 1995-2000 사람과 사람

1995 년

- 9 월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사람과 사람' 발족
- 9 월 한국 동성애자소식지 1 호 공동발간(서울대, 연세대)
- 11 월 한국 동성애자소식지 2 호 발간

1996 년

- 3 월 신입생 대상 사람과사람 소식지 배포
- 3 월 한국 대학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발족회원
- 5 월 대동제 기간 정경대 강릉 앞에서 기념 뺏지 및 티셔츠 판매
서동진씨 초청 강연 및 동성애 영화제
- 겨울 에이즈환자 지원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

1997 년

- 1 월 노동법안기부법개악에 반대하는 동성애자연대투쟁위원회
발족 참가
- 봄 우이동 봄 MT
- 6 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교과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
(탑골공원)
- 9 월 2 주년 기념 일일호프 개최
- 9 월 고연전을 맞이, 연세대 김투게더와 서울대의 마음 003 과
교류활동
- 11 월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출범회원
에이즈날 기념 유인물 및 콘돔 배포(탑골공원)

1998 년

- 3 월 연대 토론회
가을 버디 창간 후원회
컴투게더, 마음 003 와 우이동 연합 가을 MT

1999 년

- 봄 KAIST 모임과 대전 연합 가을 MT

2000 년

- 3 월 대학 연대 모임 영화 '리빙엔드' 상영
봄 봄 MT
여름 강원도 피서
가을 플래카드 “홍석천 파이팅!”
레인보우 2000 페스티벌 후원 및 참여
겨울 KUBS 와 라디오 대담
고대문화 52 호 기고 “Gay Is Not Gay”

*** 사람과 사람의 21 세기**

2001 년은 21 세기의 첫 해입니다. 물론 지극히 인위적인 구분이지만, 전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자는 억압을 받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2001 년 한 해 동안 사람과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2001 년

- 3 월 교내 대자보 작업
- 5 월 대학 동성애자 연합 캠프 준비 및 참여
레즈비언 게이 영화제 2001 개최 (제 2 학관 및 민주광장)
- 6 월 한국외대모임 “흙산이반”과 청평 MT
스톤월항쟁 31 주년 기념 영화상영 및 대토론회
(동성애자 인권연대 주최, 연세대 각당헌)
- 7 월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 8 월 제 4 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 학교 개최
(제 2 학관에서 친구사이, 끼리끼리, 킴투게더, 마음 006 과
함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항의 집회
- 9 월 무지개 2001- 퀴어문화축제 후원 및 참여
- 10 월 6 주년 기념 모임, 홈커밍데이
- 11 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60 일 릴레이 단식 동참
- 12 월 퀴어가이드 발간

예전과 달리 대학 동성애자 모임은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대학 모임 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대학 모임을 존속될 수 있습니다. 2002 년 부터의 사람과 사람의 새로운 목표는 동아리연합회 정식 가입입니다. 저희의 정식 등록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입니다. 2002 년 사람과 사람은 대내적인 세미나 및 대외 활동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 사람과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 JD

중학교 때이다. 만화주인공처럼 멋지고 잘생긴 같은 반 남학생을 열렬히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이반으로서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감정이 동성애라는 객관적용어로 내 마음에 정리된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이다. 그렇게 알게 된 후로 나의 삶은 한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어렸을 때는 이것이 사춘기의 지나가는 어떤 것 짚으로 여겼지만 대학에 와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나에게 한동안 심한 심리적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과 사람에 들어왔다.

시작

나는 한동안 혼자 하던 고민을 접고 학교에 붙어있던 전단을 보고 사람과 사람에 연락했다. 지금생각하면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통화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뽀뽀번호였고, 남길 수 있는 번호를 결정하지 못했고, 결정하고서는 용기가 없어 자꾸 끊어버린 탓이었다. 결국 용기백배(?)해서 약속하고 만나기로 했다. 뭐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인데, 내게는 흡사 비밀 접선하는 스파이처럼 가슴이 뛰었다. 게다가 처음에 나오기로 한 사람인줄 알고 말을 건넨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었다. 참으로 민망했다. 요즘처럼 '번개'가 잘 발달되었다라면 좀 더 능숙하고 세련되게 대처했을 텐데.... 한번의 실패로 의기소침한 나에게 연락이 왔다.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설명해준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찾았다. 다행이도 이번엔 성공이었다. 간단히 몇마디 나누고 언제 어디서 모임이 있으니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누자고 했다. 그러마하고 얼른 뒤돌아 왔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꽤 커서 다른

사람과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였다. 어쨌든 후련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남겨져 있던 일을 해치워버렸으니깐.

그리고 모임이 있다는 그날 약속장소로 갔다. 그때는 학교 앞에 이반형이 운영하는 작은 술집이 하나 있었다. 그 가게는 장사가 썩 잘되는 편이 아니어서(그 형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한테는 참 다행인 점이었다) 학교모임이 자주 그곳에서 있었다. 어쨌든 최대한 멋스럽게 꾸미고 모임에 나갔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매우 궁금했다. 지금생각에 한 10명 정도 였다. 평범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여자가 없다는 것 정도.(있었지만 잘 나오지 않았음.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여성이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게 되는 것은 대체로 나이 30 전후란다. 다른 학교모임도 여성회원의 수는 적다.) 그 후로 서울대와 연세대 모임에도 가보았고 이태원이나 종로의 바에도 가보았다. 내가 보아왔던 세계와는 사뭇 달랐지만,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소문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은, 적어도 내게는 없었다.

시퀀

일반 친구들과의 술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이야기와 미아리 청량리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진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술 한 잔 들어가면 시작되는 음담패설은 나로 하여금 참으로 난감하게 했다. 처음에는 그런 야시꾸리한 이야기에 동참하려고도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선배들의 여관방 포르노 비디오이야기에 솔깃해 하는 그들. 나는 그들 속에서 결국은 소외감을 느꼈다. 내가 한동안 모임의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 뽀뽀에 남긴 욕설들- 집단 섹스하냐, 변태새끼, 미친 호모새끼들 등등-을 들으면서 내가 가졌던 그런 술자리들과 장면이 겹치고 씩씩한 미소가 떠올랐다. 온갖 변태적인 상상을 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 자신의 이름 소속도 밝히지않은 무책임한 욕설.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더한 변태적 이야기도 서슴지않으면서.....

가끔씩 모임에서 전단을 붙이거나 대자보를 쓰거나 포스터를 내걸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란 것도, 모임에 동참해 달라는 것도, 그들이 음성녹음에 남긴 것처럼 집단섹스를 하러 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힘들어 하는 이반들을 찾고 일반인들이 가지고있는 잘못된 인식을 알려주려는 것 뿐인데, 붙인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가 만든 것들은 절반이상이 벌써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동성애에 관해 정말 두렵게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점이 있다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자신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 되는 것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했다.

나의 회장의 임기가 다해갈 즈음 퀴어 영화제를 기획했다. 어려움이 많았다. 모든 모임이 그렇듯 여기서도 움직이는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었다. 영화를 선정하고 책자를 만드는 것등 할 일이 너무 많아 막막했는데 마침 학교내의 한 영화동아리에서 비슷한 영화제 제의가 들어왔다. 물론 그렇다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나 스스로에게 공부의 많이 되었다. 그렇게 작은 영화제를 끝으로 나의 어려운 회장직이 깊어 가는 가을과 함께 끝났다. 이때의 어려움이 모임에 대한 나의 애착을 크게 했던 것 같다.

사랑

처음에 내가 회장이 되었을 때 모임의 성격이 친목모임의 성격에 가까웠다.사실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측면이 있다.(너무 자연스러운 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투쟁이라니!) 어쨌든 인권모임이라는 이름에

사람과 사람

부응하기위해 세미나를 많이 열었다. 또 그 당시에는 보통의 동아리에서도 세미나가 많았던 것 같다. 학회니 뭐니 해서 말이다. 소크라테스, 뉴턴, 랭보, 쇼팽, 차이콥스키, 잔 다르크에서 베르사체, 켈빈 크라인, 조지마이클, 나브라틸로바까지 많은 유명인사가 게이였다는 것도 알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정체성, aids 에 관한 것도 이때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주 관련 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늦가을쯤 신입회원으로 들어온 그를 만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뭐 특히 잘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조금씩 호감이 가기 시작한 그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자주 만났다. 같은 학교였으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매일 밥도 같이 먹고 심심하면 영화도 같이 보러 갔다. 모임에서 늘 그를 볼 수 있었다. 늘 멀리서 가슴 아프게 잊어야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는 나와 같은 성정체성을 가졌고 나를 좋아했다. 사람들이 왜 그리 애인을 사귀고 싶어하는지도 알았다. 남자 여자 만나 두달 버티기 힘든 세상에 나와 그는 1년 넘게 사귀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인가보다. 내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된 것이다. 닥쳐오리라 예상한 일이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너무나 큰 짐이 되었다. 현역입영하지 않기 위해 많이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은 꼬이고

현역 사병으로 군대에 응하게 되었고, 그는 나에게 끝까지 기다리겠다며 나를 위로했다. 결국 그와 함께 춘천으로 갔고, 깊은 포옹 후 102 보충대 안으로 들어갔다. 날이 너무 맑고 화창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다.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고 있을 때 가족의 편지와 함께 가장 많이 온 것이 그의 편지였다. 훈련병 때 생일을 맞았는데, 참 처량해 보이는 내게 큰 초코파이 상자 가득 먹을 것을 보내왔다. 그리고 그 속에 학교 모임 사람들을 뒤통해 받은 짝꿍은 생일축하 메시지가 들어 있는 큰 편지가 들어있었다.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던 유일한 날이었다. 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상병단 어느 즈음부터 편지는 뜬해졌고, 그 후 휴가나간 어느날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마음이 참 괴로웠다. 제대 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그날도 날이 참 화창했다. 그래서 더 괴로웠는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 가는 어느 날 나는 제대했다. 그리고 신병 때 보내준 생일 편지를 기억하며 모임에 다시 나왔다.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지만 모임의 느낌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또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끔 내가 다른 경로보다는 학교모임을 통해서 이반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 나로서는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 나와 사람과 사람 | Nestea**

나에게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사람과 사람은 나에게서 어디 즈음에 위치해있는가. 나는 사람과 사람에서 누구 만나며, 그들을 만나면서 나는 평온함을 느끼는가. 아직 이런 기본적인 질문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볼리 써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무슨 연유로 하여 나는 대학에 들어왔는가. 대학에 와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고교시절 꿈꾸던 대학 생활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며, 사랑도 한 번 해 보고, 여하간 뭔가 보람찬 생활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사랑에 실패하고, 하지도 않는 공부에 부담을 느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닌가. 쓰다 보니 너무 우울하게 돼 버렸는데, 여하간 이런 자괴감에 시달리던 나는 하나의 돌파구로 사람과 사람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내가 사람과 사람을 알게 된 시점과 가입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작년 언젠가 '홍석천 파이팅'이란 글귀가 적힌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홍보관 앞에 걸려있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될듯하다. 나는 그 때 처음으로 고대 내에 동성애자를 위한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 모임을 인식하는 것과 나를 모임의 일원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쉽게 말해 알고만 있었을 뿐 가입을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없었다. 솔직히 필자는 나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뿐더러, 가능하다면 나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랬다. 행여나 부모님이 아실까 걱정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심하려 애써왔다. 이런 필자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란 모임에 들게 되었는가... 하면, 부끄럽지만, 외로움 때문이었다. 누구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다지도 괴로워하는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발걸음을 사람과 사람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사람과 사람밖에 없었다. 처음 모임에 나가 느꼈던 즐거움과 해방감이 기억난다. 늘 금기에 얽매어 있었던 내가 비로소

약간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아직 어색함은 남아있고, 그다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았음에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나는 동성애자로서의 내 미래가 참으로 궁금하고도 두렵다. 돈 잘 버는, 이른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져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텐데 싶기도 하고, 아님 차라리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 조용히 그야말로 고요히 살다 같까 싶기도 하다. 우스운 건 어렸을 때 곧잘 하던 '죽고싶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 내 나이가 늙었다고 하기엔 웬지 찝찝하고, 차라리 삶에 익숙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듯하다만, 드디어 나도 삶에 집착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남들은 안 하는 고민 따위 나도 안 하고 싶다. 사랑하고 사랑 받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그리운 까닭에 감히 죽고싶다는 말을 입밖에 낼 수 없다. 불만스럽게도 이것이 바로 내가 지닌 현실인 것이다. 아마도 적극적인 사람은 '나에게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오!' 하고 외치며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논하겠지만 나는 다만 슬플 뿐이다. 행복해질 가능성이 너무도 적은 나의 삶이 말이다.

나는 지금 사랑이란 걸 하고있는 걸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 한 구석에 뿌리를 틀고 앉아있다. 고교시절 내가 누군갈 좋아하는 지 확인하고 난 후부터 시작된 고민들인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어쩌면 확답을 내리는 것이 두려운지도 모르겠다.

뛼아 빠진 일상을 견뎌 나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 떠오른다. 나 자신을 마냥 옳다고 보고싶진 않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나는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

사람과 사람

받는다는 글귀를 떠올리며 사랑과 행복을 기다릴 뿐이다. 나는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에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견뎌나가는 것이다.

* 사람과 사람과 함께하세요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사람과 사람**” (Korea University Lesbian and Gay Club, **People to People**) 은 동성애자를 생각하는 동성애자 와 이성애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의 많은 동성애자 여러분에게는 편한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이성애자 여러분에게는 인식의 전환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함께하실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신청을 해주십시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온라인 연락법입니다. (예전의 뽀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queerkorea.org>

이메일 saram@queerkorea.org

저희 홈페이지는 어는 분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맺음글 | peanutz

새내기로서 대학의 문에 처음 발을 내딛은 것만으로도 저에게 2001 년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한 해이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해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이유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게이/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몸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를 깨닫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진부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나 스스로에 대해 느껴왔던 부정적인 인식은 올 한해 ‘사람과 사람’ 의 ‘사람’ 들과 함께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긍정으로 기울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이렇게 나의 내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점점 더 관심이 가는 쪽은 나의 ‘바깥쪽’ 입니다. 나 스스로를 항상 부정하게 했던 ‘바깥’ 것들. 솔직히 그것에 대항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지금의 개 같은 현실에 대항해 어디 나가서 구호라도 외쳐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운동이라도 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을 고치기보다는 그를 향해 ‘병신새끼!’ 한마디 내뱉고 지나가 버리겠지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그는 단지 다른 ‘생각’ 을 가진, 다른 ‘취향’ 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생각 속에 저를 비롯한 어떤 동성애자들도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람과 사람

일상에 동성애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더불어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인식의 반대편에서 있다면 어느 누구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은 그와 같은 '다가서기 어려움'이 '편견과 폭력'으로 바뀌어 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이성애자들의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에서, 나아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그 속에 진실로 끼지 못함을 깨닫고 실망합니다.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난 동성애자야!' (Coming Out of the closet)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사람과 사람'은 어느 해보다도 많이, 고대 학우들에게 '커밍아웃'했던 것 같습니다. 5 월에는 민주광장에서 '레즈비언 게이 영화제(Lesbian & Gay Film Festival 2001)'가 있었고, 8 월의 더운 여름날 4.18 기념관에서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반 인권학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얼굴을 드러내 놓고 외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들의 커밍아웃이 다소 가십거리에 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고대 학우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인상을 남겨주지 못한채.

이번 퀴어가이드 소책자 발간은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항상 일반인들의 인식 밖에서, 하지만 그들 주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일상적인(혹은 특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이자 나름대로의 끄적거림입니다. 누군가는, ‘니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책까지 뿌리고 다니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나지도 않았고, 잘났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애자들 중 바로 옆의 친구가 자신을 향해 커밍아웃 했을 때 게이/레즈비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실체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식 안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동성애자 친구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성애자 여러분들을 위한 GUIDEBOOK 이 되길 원합니다. 소책자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내용을 배제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는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성애자들 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지요. 물론 몇몇 부분들은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나 내용이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성애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 지향’ 이 다르면, 겉에서는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평소의 생활과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와 같은 가이드북의 필요성을 좀더 절실하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동안 제대로 뒤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시성을 드러내기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스스로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나서려는 이유입니다. 정독하실 필요도 없고, 그저 훑어보셨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보시고, 내 주위의 성적 소수자들에 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만한 기회를 갖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책을 비롯해 앞으로 ‘사람과 사람’ 이 해나갈 활동들이 지금 어디선가 정체성을 고민하며 스스로를 숨기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을 많은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소중한 이성애자 친구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작지만 열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